

2026년 2월 2일 대구 2026-12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월 3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대구경제 성장잠재력 점검 및 발전 방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손윤석, 조사역 정유정  
Tel. (053)429-0252, 0259 Fax. (053)429-0219 E-mail. daegu@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대구경제 성장잠재력 점검 및 발전 방향

2026. 1.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손윤석 과장, 정유정 조사역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요약>

---

<b>I. 논의 배경</b>	1
<b>II. 대구경제의 성장 흐름</b>	2
<b>III. 대구경제의 주요 구조적 제약</b>	4
1. 주력 산업 성장세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4
2. 고용 여건 악화	12
3. 구조적 제약과 성장잠재력 약화	19
<b>IV. 향후 대응 방향</b>	20
1. 산업	20
2. 고용	24
<b>참고1</b> 산업 고도화지수 및 지역 고도화지수	26
<b>참고2</b> 지역혁신지수	27
<b>참고3</b>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	28
<b>참고4</b> 요인별 실업 분해	28
<b>참고5</b> 잠재성장률 추정	29
<b>참고6</b> 대구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30

---

## <참고문헌>

---

## 요약

① 대구지역은 광역경제권 내 소비·거주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발전해왔으나,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기반 약화가 겹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 대구지역의 성장을 견인한 주력 제조업<sup>섬유, 기계, 자동차부품</sup> 등과 전통적 서비스업<sup>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sup>의 성장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대구지역의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도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② 대구지역은 ①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 ②산업구조 고도화 지연과 ③고용 여건 악화라는 파고에 부딪히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 ① 대구지역의 주력 산업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쟁에 직면하였고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가세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제조업은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부품 및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사업체들이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역내 설비투자 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또한 혁신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산업 고도화 정도가 낮은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아 낮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을 뒷받침할 혁신역량은 다소 부진하여 생산성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③ 대구지역은 제조업 및 전통적 서비스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하며, 취업자수가 정점인 2016년 이후 정체된 모습이다. 인구구조 변화<sup>저출생, 청년인구 유출</sup>로 노동공급측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창출력이 높은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노동수급 불균형 심화가 맞물리면서 고용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 그 결과 대구지역의 성장잠재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③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①생산성 제고, ②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③노동투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① 스마트공장의 증축과 고도화 등 생산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역내 노후산업 단지 재정비가 요구된다.
- ② 대경권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여건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③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인구 정착과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일자리 플랫폼을 발전·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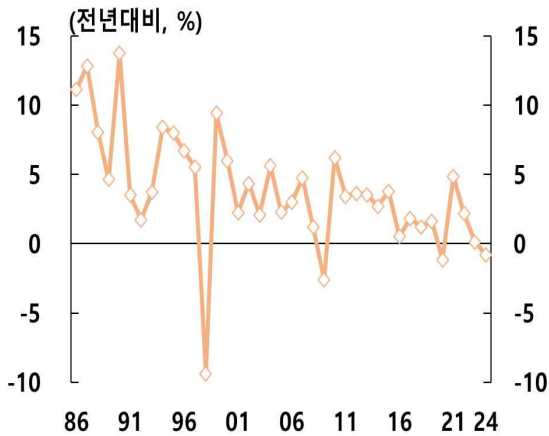
# I. 논의 배경

1.1. 대구지역이 광역경제권 내 소비<sup>교육·의료·문화</sup>와 거주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대구 경제는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로 발전해 왔다. 2024년 기준으로 부가가치 내 제조업 비중<sup>생산 측면</sup>은 21.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서비스업<sup>생산 측면</sup>과 소비<sup>지출 측면</sup> 비중은 각각 71.9%, 72.3%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뚜렷하다. 이는 경상북도가 생산과 투자 기능을, 대구지역이 소비와 거주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에 기인한다. 즉, 대구는 광역권 주민의 생활 수요를 흡수하는 내수 기반을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1.2. 그러나 대구경제는 오랫동안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고용 회복도 지연되는 모습이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며<sup>[그림1-1]</sup>, 최근에는 분기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성장세 둔화가 노동시장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sup>[그림1-2]</sup> 이러한 대구경제의 모습은 일시적인 경기 요인 외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연, 인구구조 변화<sup>저출생, 청년인구 유출</sup>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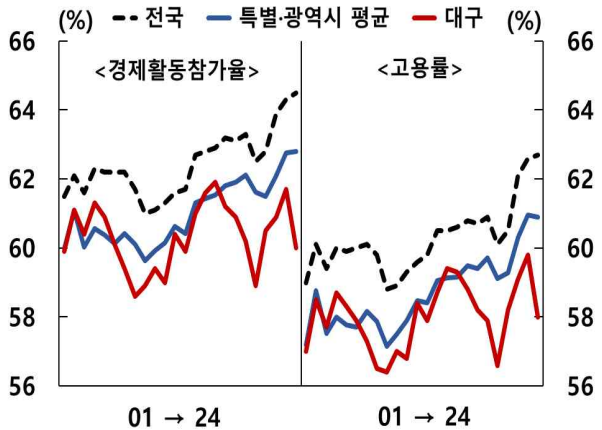
## 대구경제는 성장과 고용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그림1-1] 대구지역 연간 GRDP 성장률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그림1-2] 고용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1.3. 본 보고서는 대구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대구경제가 직면한 주요 구조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표. 대구경제의 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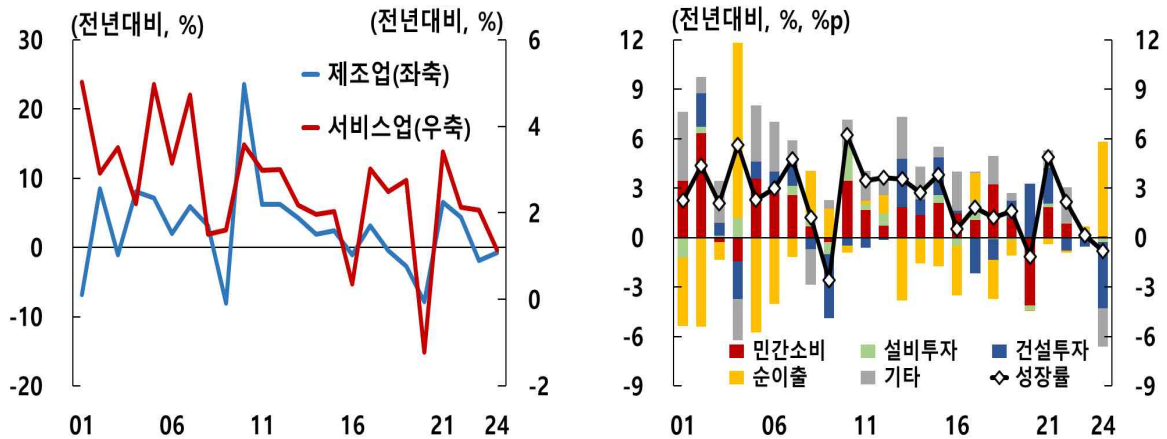
**2.1. 대구경제는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내수 기반 약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주력 제조업<sup>1)</sup>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과 전통적 서비스업<sup>2)</sup>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sup>[그림2-1]</sup>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1~10년 중 각각 연평균 4.3%, 3.3% 성장하였으나, 2011~24년에는 각각 1.5%,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은 2016~19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는 등 2010년대 중반부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내수 의존도<sup>1)</sup>가 높은 대구경제는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sup>[그림2-2]</sup> 민간소비는 소득 회복 지연<sup>2)</sup>,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나타난 평균 소비성향 둔화<sup>3)</sup> 등 다양한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2002년에 정점<sup>6.3%p</sup>을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0.1%p까지 축소되었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체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시기별로 기여도가 상이하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대구지역으로 유입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유출보다 많은 순이입의 지속<sup>4)</sup>도 대구경제의 성장을 일부 제약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 대구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기반은 약화됨

[그림2-1] 대구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그림2-2]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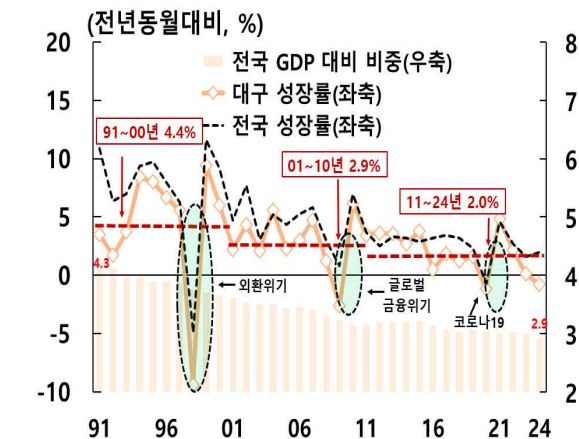
- 1)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0년 대구지역의 부가가치 내 비중이 중간수요(= 중간수요 / 부가가치)와 최종수요(= 최종 소비와 투자 수요 / 부가가치)가 각각 51.2%, 38.6%로서 대구경제는 총 부가가치의 89.9%를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 2)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실질임금지수(2020년 전국=100, 지역별고용조사)  
: 대구지역(2013년 67.0 → 20년 95.0 → 24년 93.9), 전국(2013년 80.7 → 20년 100.0 → 24년 103.0)
- 3) 대구지역의 평균 소비성향(= 민간소비 / 총처분가능소득)은 2002년에 정점(101.7%)을 기록한 이후 점점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87.9%를 기록하였다.
- 4)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재화와 서비스가 계속 순이입되고 있다. 다만 전년대비 순이입 증가폭이 축소되면 [그림2-2]와 같이 성장기여도가 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2.2. 이로 인해 대구경제의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대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1~2000년 4.4%, 2001~10년 2.9%, 2011~24년 2.0%로 성장세 둔화가 확연히 드러난다.<sup>[그림2-3]</sup>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sup>2016~24년</sup>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그쳤다. 대구경제의 성장률이 오랫동안 전국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sup>4.3%</sup>부터 2024년<sup>2.9%</sup>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sup>1997년</sup>, 글로벌 금융위기<sup>2008년</sup>, 코로나19<sup>2020년</sup> 등과 같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성장률 하락폭이 전국보다 컸던 반면 이후의 반등 속도는 완만하여 경기 회복이 제한적이었다. 대구경제는 코로나19 충격 이후<sup>2022년 이후</sup>에도 성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4년 3/4분기부터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지속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성장 둔화는 일시적 부진보다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성장률이 정체되는 추세적 약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0년대 초반 3%를 상회했던 추세성장률이 2010년대부터 본격 하락하여 2024년에는 1% 중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sup>[그림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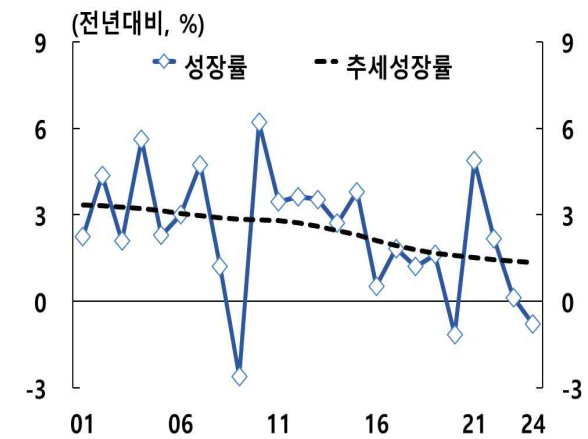
**대구경제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그림2-3] 대구지역 성장지표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한국은행

[그림2-4] 성장률 및 추세성장률<sup>1)</sup>



주: 1) 추세성장률은 HP필터를 통해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자체 시산

**2.3.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지역은 주력 산업이 정체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고용도 부진한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 대구지역이 마주한 제약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Ⅲ. 대구경제의 주요 구조적 제약

## 1. 주력 산업 성장세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 ①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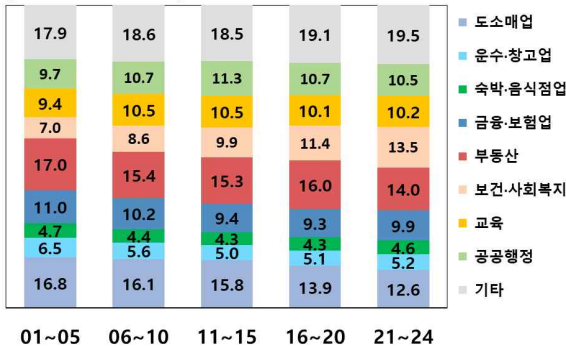
3.1. 대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력 산업들이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된 데다 대내외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먼저 주력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마주한 여건을 살펴보겠다.

3.2. 주력 서비스업은 구조적 제약에 부딪히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림3-1], [그림3-2] 광역권 내에서 소비와 거주 중심지인 대구지역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소득기반 약화<sup>5)</sup>, 인구구조 변화(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사업체 영세화에 따른 과당 경쟁 등 여러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다. 교육 서비스업이 학령인구 감소로, 부동산업은 지역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부동산 거래 위축, 분양시장 부진<sup>6)</sup>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높아진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시기(2021~24년) 중 2021~22년에 팬데믹 충격(2020년)의 기저효과와 리오프닝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2023년부터는 성장세가 재차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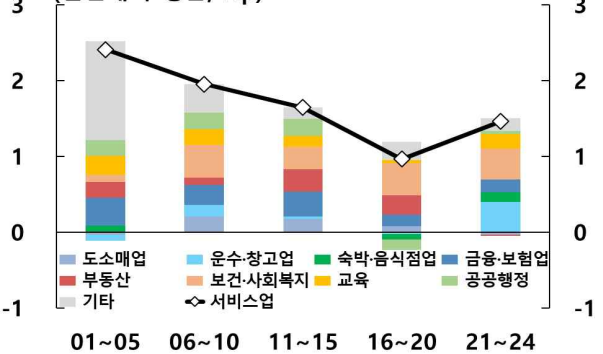
### 대구지역의 주력 서비스업인 전통적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둔화되고 있음

[그림3-1] 대구지역 서비스업 내 세부 산업별 비중 [그림3-2]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성장기여도

(서비스업 내 비중, %)



(전년대비 평균, %p)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5)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구지역 가계의 실질 피용자보수(2001~15년 +3.0% → 16~24년 2.3%, 연평균 증가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6) 2025년 11월 기준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 비중(전국의 10.5%)이 경기(19.0%), 충남(11.4%)과 부산(11.2%) 다음으로 높고, 준공 후 미분양(12.8%)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3.3.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섬유, 기계류,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성숙화 단계<sup>경쟁 심화</sup>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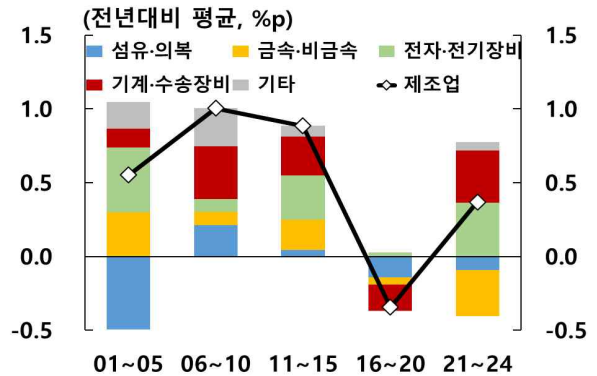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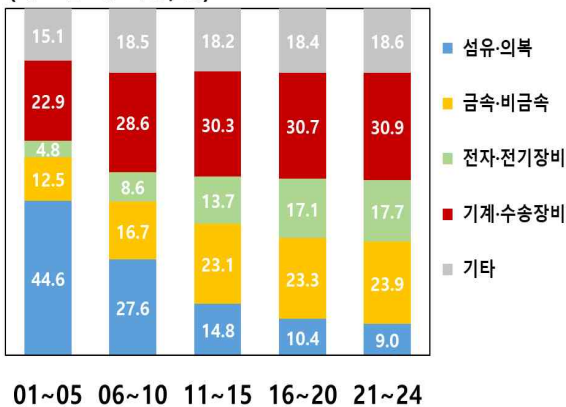
[그림3-3], [그림3-4] 섬유산업은 1960년대에 정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를 배경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인건비 상승, 섬유 쿼터제 폐지<sup>7)</sup>,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국제 경쟁력 하락과 아시아 신흥국<sup>중국, 베트남</sup> 등으로의 생산거점 이동 등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sup>8)</sup>

한편 대규모 산업단지<sup>성서산업단지, 달성국가산업단지 등</sup> 조성을 계기로 성장 동력이 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와 이들의 후방산업인 금속가공으로 전환되었다. 동 산업들은 전방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불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자동차부품<sup>수송장비</sup>은 완성차의 대내외 수요 둔화와 전장화<sup>내연기관 수요 축소,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sup> 등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계류는 설비투자 수요 약화, 신흥국<sup>중국</sup> 등과의 경쟁 심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속가공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부품과 기계장비의 성장세 둔화에도 최근 건설업의 부진이 겹치면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기<sup>2021~24년</sup>에 대구지역의 제조업도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2021~22년의 일시적 반등에 힘입어 성장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2023년부터는 다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주력 제조업인 섬유·의복, 기계·수송장비와 금속·비금속의 성장기여도가 둔화되고 있음**

[그림3-3] 대구지역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비중 [그림3-4] 제조업 세부 산업별 성장기여도

(제조업 내 비중, %)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7) 선진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던 섬유 쿼터제를 2005년 1월 1일 폐지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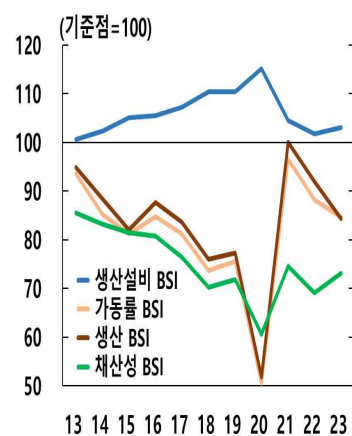
8) 현재 대구의 섬유산업은 의류용 중심 구조에서 항공과 우주 분야 등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등 고부가가치 섬유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3.4.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주력 제조업 생태계는 중간재·부품을 완제품 업체에 공급하는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sup>9)</sup>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업황 둔화 지속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사업체의 투자여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경기실사지수<sub>BSI</sub>에도 드러난다.<sup>[그림3-5]</sup> 생산설비 수준이 과잉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업체 비중이 과반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생산설비 BSI가 계속해서 100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채산성, 가동률과 생산 BSI는 장기간 100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생산, 채산성과 가동률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과반의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의 추가적인 생산설비 확충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도 역내 사업체들의 설비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사업체들은 업황 둔화 속에서 예금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행태<sup>10)</sup>로 인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sup>11)</sup> 실제로 시설자금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15년 23.5%에서 2024년 1.7%로 낮아졌다.<sup>[그림3-6]</sup> 이러한 가운데 경제 내 불확실성은 대내외 비우호적인 여건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sup>[그림3-7]</sup>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확대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 증가<sup>12)</sup>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내 투자가 일부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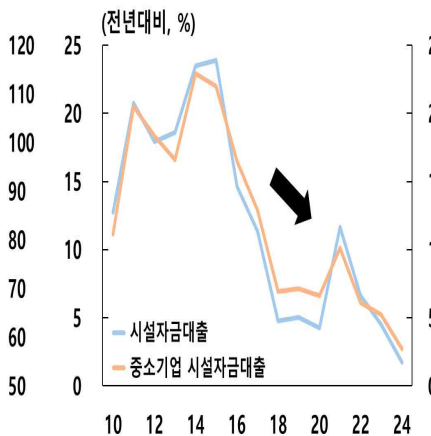
**대구지역의 생산설비 확장 압력이 크지 않고 시설자금 대출이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내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음**

[그림3-5] 대구지역 제조업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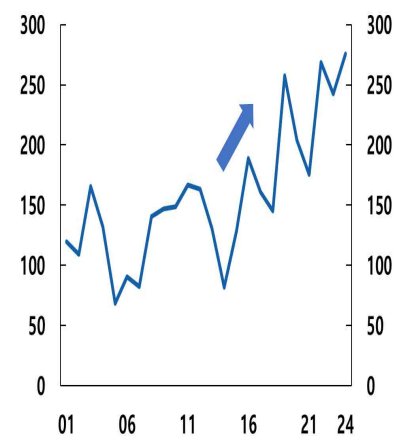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3-6] 시설자금대출 증가율



[그림3-7] 거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Baker et al(2016)

9) 2024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대구(88.5%)가 전국(84.9%)과 특별·광역시 평균(85.9%)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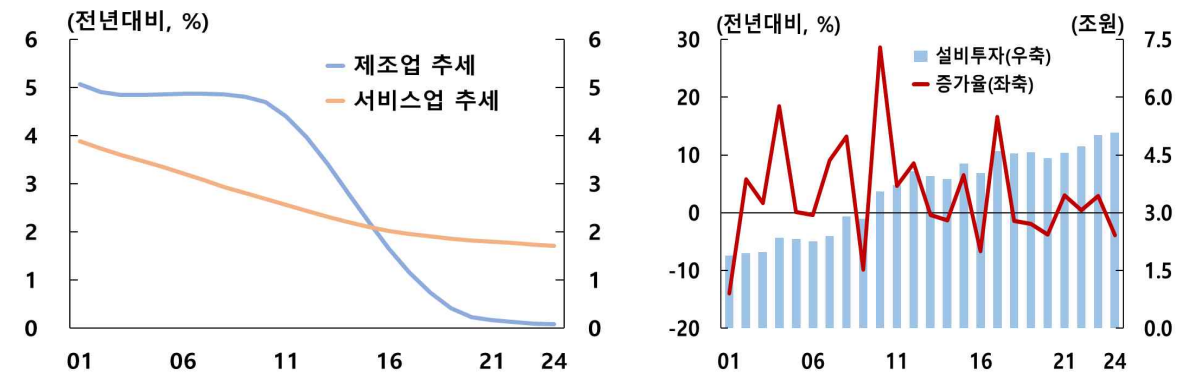
10) 대출행태서베이(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07년) 각각 -0.8과 6.3에서 위기 이후(2008~24년) 각각 -3.4와 2.9로 하락하여 대출태도가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 대구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자금사정 BSI는 2015년 이후 80을 하회하고 있다.

12)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2010년 0.48억달러 → 24년 2.63억달러)하였다.

3.6.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이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sup>[그림3-8]</sup> 확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설비투자 추이<sup>[그림3-9]</sup>를 보면 2010년대 이후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설비투자 약화는 자본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음  
 [그림3-8] 대구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세성장률<sup>1)</sup> [그림3-9] 설비투자



주: 1) 2000년 이후 데이터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세를 추출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자체 시산

3.7. 이에 더하여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경우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진할 경우 공정 고도화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육성이 지연될 수 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가 더욱 어려워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더더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를 진단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역량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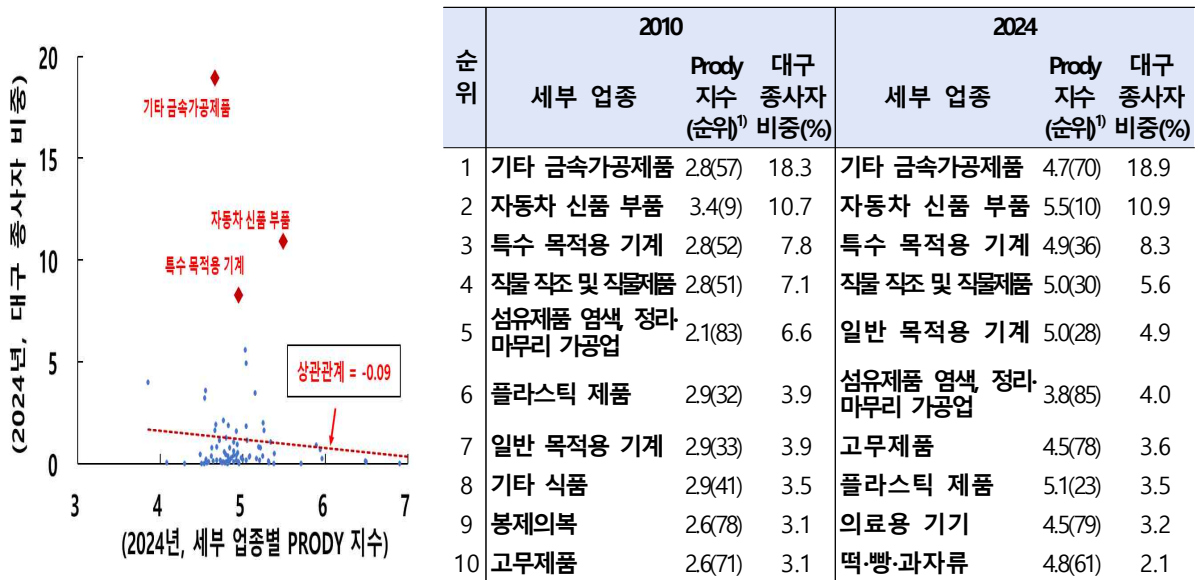
## ②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3.8. 본 절에서는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을 평가한 후 혁신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특정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로 바꾸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제조업 85개와 서비스업 35개의 고도화지수<sup>PRODY<sup>13)</sup></sup>를 산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구지역 주요 산업종사자 비중 기준의 고도화지수 등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3.9. 먼저 대구지역의 주요 제조업을 보면 고도화지수가 높은 산업에서는 종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 산업 고도화 진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으로 제조업종별 산업 고도화지수와 대구지역 종사자 비중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도화지수가 높은 업종에서는 종사자 비중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림3-10] 즉, 제조업종의 고도화지수와 종사자 비중 간에 역의 상관관계<sup>-0.09</sup>가 있다. [표3-1]은 대구지역에서 상위 10개 종사자 비중 기준 제조업종의 2024년 산업 고도화지수를 2010년과 비교하여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상위 10개 중 비교적 고도화지수가 높은 업종은 자동차부품<sup>85개중 10위</sup>과 플라스틱 제품<sup>23위</sup> 2곳에 그쳤다. 더욱이 2010년과 비교하면 플라스틱 제품 종사자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 금속가공제품은 2010년에 비해 고도화지수 순위가 하락<sup>57위 → 70위</sup>하였다. 상위 10개 업종의 구성을 보면 2010년과 2024년 사이 1개 업종만 변화<sup>봉제의복 → 의료용 기기</sup>하고 9개 업종은 유지되었으며, 새로 편입된 1개 업종<sup>의료용 기기</sup>도 고도화지수가 낮게<sup>79위</sup>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구지역의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업종의 육성과 같은 구조 고도화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종의 고도화는 높지 않은 수준임

[그림3-10] 대구지역 제조업 고도화 [표3-1] 주력 제조업 고도화지수 변화 지수와 종사자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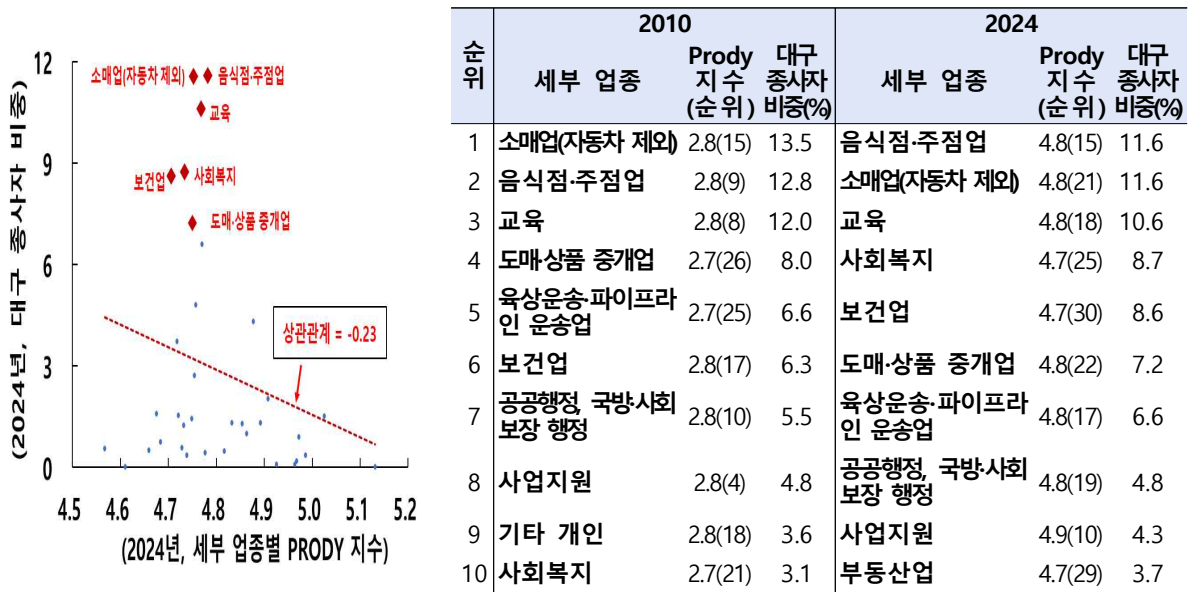
주: 1) 85개 세부 업종(KSIC 중분류)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전국사업체조사), 권상준(2021)을 바탕으로 자체 시산

1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산업 고도화지수 및 지역 고도화지수」를 참조하기 바란다.

**3.10.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산업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산업 고도화지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종사자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sup>[그림3-11]</sup>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는 서비스업  $-0.23$ 이 제조업  $-0.09$ 에 비해 더욱 뚜렷하다. [표3-2]는 대구지역 상위 10개 종사자 비중 기준 서비스업종의 2024년 산업 고도화지수를 2010년과 비교하여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지원<sup>35개중 10위</sup>의 고도화지수가 비교적 높지만 소매업<sup>21위</sup>, 사회복지<sup>25위</sup>, 보건업<sup>30위</sup>, 도매·상품 중개업<sup>22위</sup> 등 대부분의 업종은 고도화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2024년에는 음식점·주점업<sup>9위→15위</sup>, 소매업<sup>15위→21위</sup>, 교육<sup>8위→18위</sup>, 보건업<sup>17위→30위</sup> 등 주력 서비스업의 고도화지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주력 서비스업종의 경우 2024년에 부동산업<sup>29위</sup>이 새로 진입하였으나 나머지 9개 업종은 2010년과 동일하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은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고 대부분 업종에서 고도화 수준이 하락하였다.

**대구지역의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의 고도화 수준도 높지 않음**

[그림3-11] 대구지역 서비스업 고도화 [표3-2] 주력 서비스업 고도화지수 변화 지수와 종사자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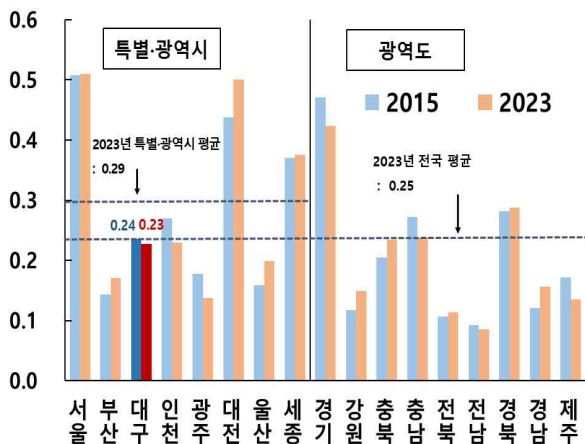
주: 1) 35개 세부 업종(KSIC 중분류)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전국사업체조사), 권상준(2021)을 바탕으로 자체 시산

**3.11.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혁신역량이란 기존 생산 공정의 단순 증설을 넘어 공정 전환을 위한 설비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와 무형자산<sub>R&D</sub> 등에 대한 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대구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혁신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이선(2024)의 방법을 바탕으로 평가<sup>14)</su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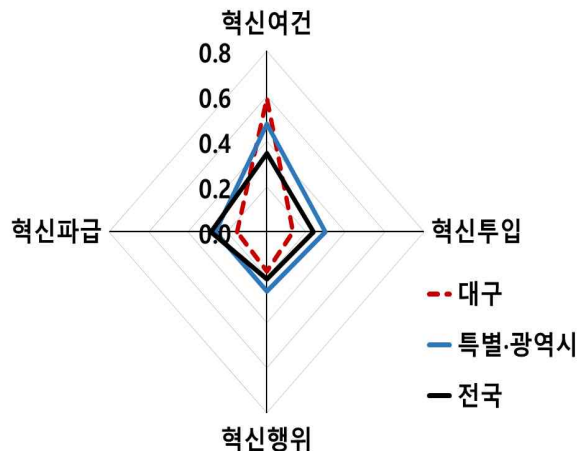
**3.12. 대구지역은 혁신여건이 양호하나 혁신투입, 혁신행위와 혁신과급 측면에서 부진하여 전체적인 혁신역량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12], [그림3-13] [표3-3]의 평가부문을 이용하여 산정한 대구지역의 혁신역량은 2023년 0.23으로 2015년<sup>0.24</sup>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특별·광역시<sup>0.29</sup> 평균과 전국<sup>0.25</sup>을 하회한다. 혁신역량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혁신여건<sup>부문①</sup>은 대구지역<sup>0.59</sup>이 특별·광역시<sup>0.48</sup> 평균과 전국<sup>0.25</sup>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혁신투입<sup>부문②</sup>은 대구지역<sup>0.14</sup>이 특별·광역시<sup>0.30</sup> 평균과 전국<sup>0.24</sup>을 하회한다. 혁신행위<sup>부문③</sup>도 대구지역<sup>0.17</sup>이 특별·광역시<sup>0.26</sup> 평균과 전국<sup>0.21</sup>을, 마지막 혁신과급<sup>부문④</sup>마저 대구지역<sup>0.15</sup>이 특별·광역시<sup>0.26</sup> 평균과 전국<sup>0.28</sup>을 하회한다. 즉, 대구지역은 혁신에 필요한 기초 환경이 양호하나 자원의 투입, 실현된 혁신 행위와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긍정적 과급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전체 혁신역량은 낮게 나타난다.

**대구지역은 양호한 혁신여건을 보유했음에도 혁신투자, 혁신행위와 혁신과급이 부진하여 전체 혁신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3-12] 지역혁신지수<sup>1)</sup>



[그림3-13] 2023년 기준 세부 항목별 지역혁신지수<sup>1)</sup>



주: 1) 유이선(2024)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체 시산 자료: 국가데이터처

[표3-3] 지역혁신지수 평가부문<sup>1)</sup>

대부문	혁신투입		혁신산출	
중부문	혁신여건	혁신투입	혁신행위	혁신과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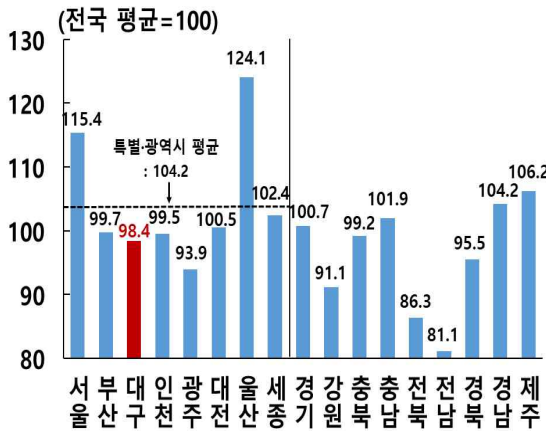
주: 1) 각 부문별 세부항목은 [참고 2](#) 「지역혁신지수」를 참조

14)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지역혁신지수」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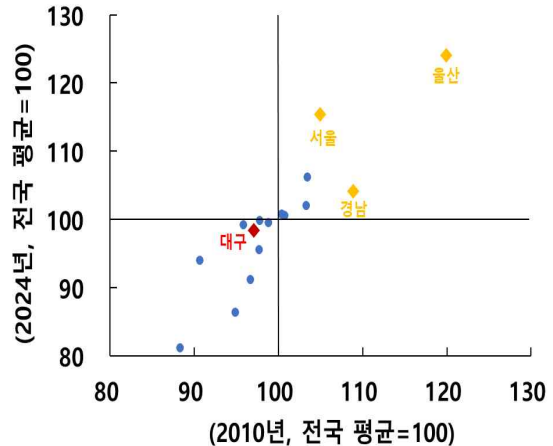
**3.13. 종합하면 대구지역은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이 더딘 가운데 혁신역량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산업 고도화지수를 종사자 비중으로 가중하여 산출한 지역 고도화지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은 전국<sup>12위</sup>과 특별·광역시<sup>7위</sup> 평균을 모두 하회한다.<sup>[그림3-14]</sup> 2010년에도 대구지역의 고도화지수가 전국을 하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구경제는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그림3-15]</sup> 즉, 대구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무형자산 축적과 기술 확산의 제약 등에 따른 낮은 혁신역량이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 잠재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산업 경쟁력이 다소 낮음**

[그림3-14] 2024년 지역 고도화지수



[그림3-15] 지역 고도화지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전국사업체조사), 권상준(2021)을 바탕으로 자체 시산

## 2. 고용 여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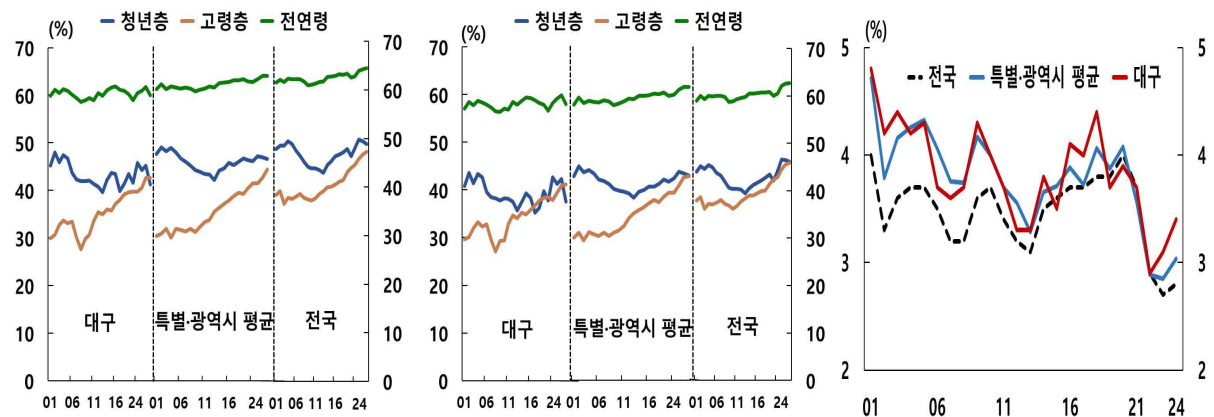
**3.14. 대구지역의 고용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 절에서 대구경제는 전통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이 맞물리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자본투입과 중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하방 리스크도 살펴보았다. 성장잠재력은 자본투입과 중요소생산성 외에 노동투입에도 좌우되는 만큼 대구지역의 고용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구지역의 고용 부진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다.

**3.15. 대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 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sup>61.9%</sup>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도 2015년<sup>59.4%</sup> 이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전국과 특별·광역시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반면 대구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특히 2024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sup>15)</sup>되었다.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면 고령층<sup>60세 이상</sup>이 꾸준히 개선되는 데 반해 청년층<sup>15~29세</sup>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대구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청년층을 상회하였다. [그림3-16], [그림3-17] 이는 전국과 특별·광역시의 청년층 고용지표들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 대체로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한편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에 급등<sup>2022년 2.9% → 23년 3.1% → 24년 3.4%</sup>하면서 2024년에는 전국<sup>2.8%</sup>과 특별·광역시<sup>3.0%</sup> 평균을 웃돌았다. [그림3-18]

### 대구지역의 양적 고용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3-16]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3-17] 연령별 고용률

[그림3-18]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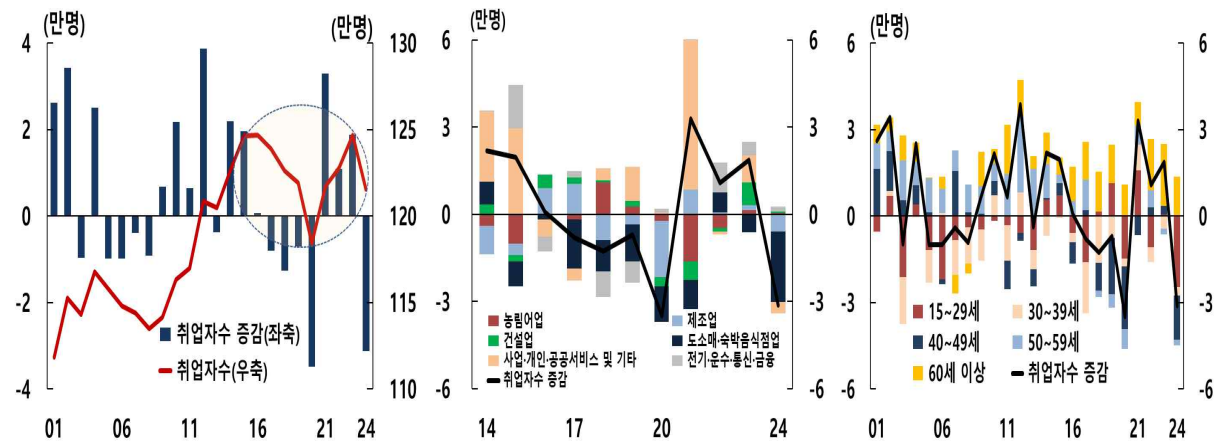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15)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증감(2023년 대비, %p): 대구 -1.7 / -1.8, 특별·광역시 평균 0.0 / -0.1, 전국 +0.2 / +0.1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증감( ) : 대구 -4.0 / -4.8, 특별·광역시 평균 -0.4 / -0.5, 전국 -0.5 / -0.4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증감( ) : 대구 0.0 / +0.3, 특별·광역시 평균 +1.7 / +0.2, 전국 +0.6 / +0.4

**3.16. 취업자수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sup>[그림3-19]</sup> 대구지역의 취업자수는 2010년 이후 증가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sup>124.7만명</sup>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에 저점<sup>118.4만명</sup>을 기록한 후 취업자수가 다시 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sup>전년대비 +15.9만명</sup>과 달리 3.1만명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sup>16)</sup>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최근 취업자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sup>[그림3-20]</sup>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와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50세 이상은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과 30~49세는 모두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sup>[그림3-21]</sup>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고용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 2010년 중반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sup>17)</sup>

**대구지역은 제조업 및 전통적 서비스업과 청년층 고용이 부진하면서 취업자수 증가가 다소 제약됨**  
**[그림3-19] 대구지역 취업자수 증감 [그림3-20]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그림3-21]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3.17. 대구지역의 고용지표 부진은 인구구조,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 흐름, 노동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중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구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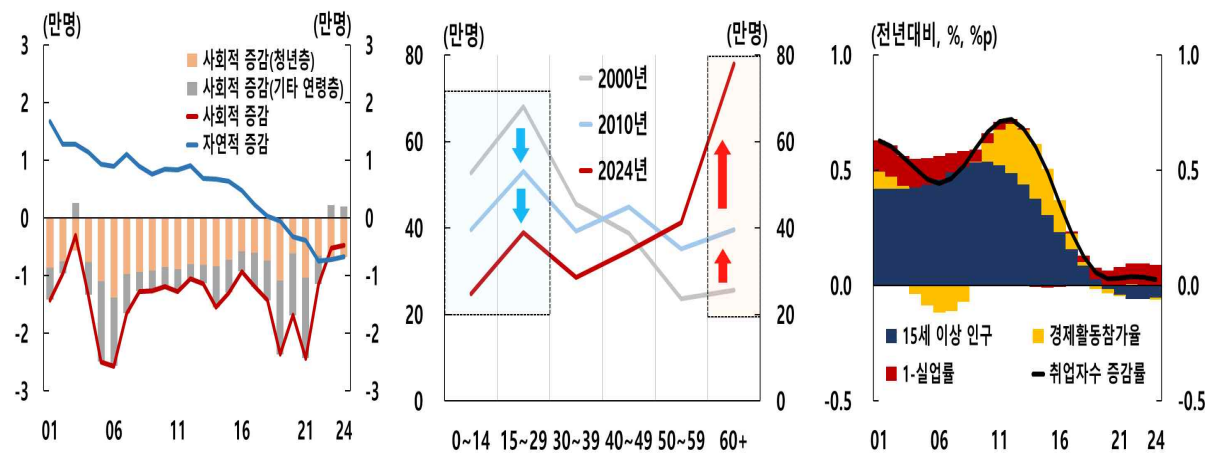
16) 2020년 기준 대구지역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산업 대분류 33개 업종 내 순위)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21.2, 3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7.6, 6위)  
 17) 2024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2015년 대비, %p): 대구 -3.1, 특별·광역시 평균 -2.0, 전국 -1.6

**3.18. 대구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자연적 인구증감<sup>18)</sup>을 살펴보면 증가폭이 저출생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축소되다가 2019년 인구가 감소로 전환한 이후에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출생아수는 1995년 38,779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9,410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하회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청년층 15~29세를 중심으로 순유출 사회적 인구증감 되고 있다.<sup>[그림3-22]</sup>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인구유출은 주로 직업 관련 요인에 기인<sup>19)</sup>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적 요인에 따른 지역 이탈은 청년층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도 사회적 인구증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인구 증가를 청년층 등 다른 연령대의 감소가 상쇄하면서<sup>[그림3-23]</sup> 생산가능인구 15세 이상은 2001년 180.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수 증감률 추세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그림3-24]</sup> 노동공급 측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는 장기간에 걸쳐 점차 축소되어 오다가 2020년 이후에는 음(-)으로 전환되면서 취업자수 증감률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3-22] 대구지역 인구증감 [그림3-23] 연령별 인구구조 [그림3-24] 취업자수 증감률 추세 분해<sup>1)</sup>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추세는 HP필터를 통해 추출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18) 출생건수와 사망건수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19)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직업적 이유로 대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비중이 2013년(38.4%)부터 2024년(41.4%)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3.19.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도 대구지역 고용을 제약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취업자수는 고용창출능력이 높은 주력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되었다.

대구지역의 취업자수 증감을 동태적 변화할당 방법<sup>20)21)</sup>으로 분해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고유 요인인 지역경쟁력 요인과 자원배분 요인이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sup>[그림3-25]</sup> 특정 산업에서 대구지역의 전국 대비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경쟁력 요인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역내 산업 간 인력배분을 의미하는 자원배분 요인도 고용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sup>[표3-4]</sup> 2010년대 중반 이후<sup>2016~24년</sup> 지역경쟁력 요인과 자원배분 요인에서 비롯된 대구지역의 취업자수 증감은 제조업의 경우 각각 -1.5만명<sup>2016~20년</sup> -0.8만명, 2021~24년 -0.7만명, -0.5만명<sup>2016~20년</sup> -0.3만명, -0.2만명이며 서비스업은 각각 -9.9만명<sup>2016~20년</sup> -5.4만명, -4.5만명, -1.7만명<sup>2016~20년</sup> -1.0만명, -0.7만명이었다. 이는 지역 고용이 전국 차원의 요인만으로는 반등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수 감소폭이 컸던 서비스업은 특히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으로 구성된 유통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서비스업에서 지역 요인으로 인한 부진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쟁력 요인과 자원배분 요인에서 비롯된 취업자수 증감이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3.5만명<sup>2016~20년</sup> -2.8만명, 2021~24년 -0.7만명, -0.6만명<sup>2016~20년</sup> -0.4만명, -0.2만명이며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2.8만명<sup>2016~20년</sup> -0.7만명, -2.1만명, -0.2만명<sup>2016~20년</sup> -0.3만명, +0.1만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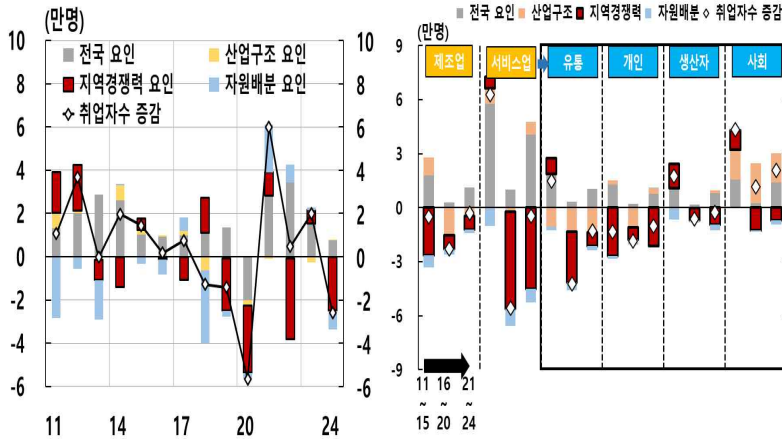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업종별 취업자수 추세에서도 확인된다.<sup>[그림3-26]</sup> 전체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공공부문을 제외한 취업자수와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대구지역의 고용 부진을 일부 만회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어 전체 고용 회복이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동태적 변화할당(Dynamic Shift-Share) 분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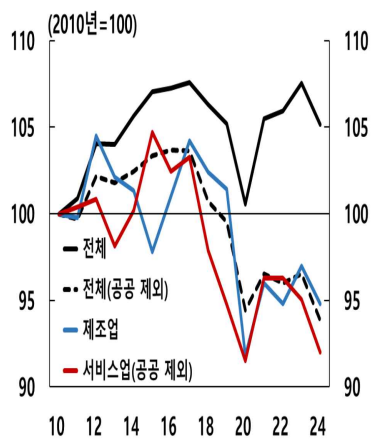
21) 본 절의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요인 분석에서는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주요 고용지표의 흐름이 대체로 유사하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세부 업종 단위의 고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구지역의 주력 산업 부진은 고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3-25] 대구지역 취업자수 증감 요인 분해<sup>1)</sup>



[그림3-26] 업종별 취업자수 추세<sup>2)</sup>



주: 1) 서비스업을 유통(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개인(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생산자(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와 사회(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사회복지)로 분류  
 2) 공공부문은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고용조사), 자체 시산

[표3-4] 대구지역 취업자수 증감 요인 분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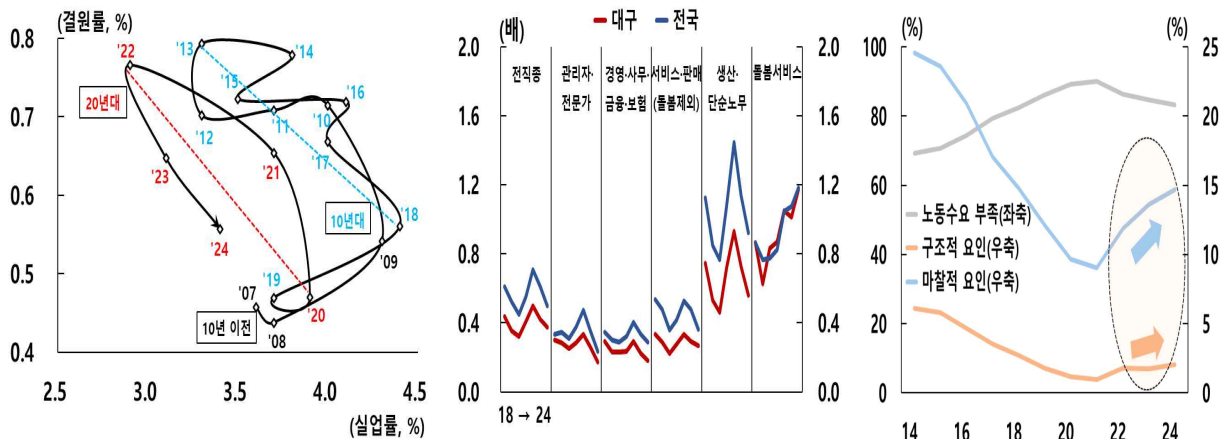
산업	년도	취업자수 증감	요인 분해			
			전국	산업	지역경쟁력	자원배분
제조업	2011~15	-0.5	1.8	1.0	-2.7	-0.6
	2016~20	-2.3	0.3	-1.5	-0.8	-0.3
	2021~24	-0.3	1.1	-0.5	-0.7	-0.2
서비스업	2011~15	6.3	5.8	0.9	0.6	-1.0
	2016~20	-5.6	1.0	-0.2	-5.4	-1.0
	2021~24	-0.4	4.0	0.7	-4.5	-0.7
유통	2011~15	1.5	1.9	-1.1	0.9	-0.2
	2016~20	-4.2	0.3	-1.3	-2.8	-0.4
	2021~24	-1.3	1.1	-1.4	-0.7	-0.2
개인	2011~15	-1.3	1.3	0.2	-2.7	-0.1
	2016~20	-1.8	0.2	-1.1	-0.7	-0.3
	2021~24	-1.0	0.8	0.3	-2.1	0.1
생산자	2011~15	1.8	1.0	0.0	1.4	-0.7
	2016~20	-0.6	0.2	0.0	-0.7	-0.1
	2021~24	-0.3	0.8	0.2	-0.9	-0.3
사회	2011~15	4.4	1.6	1.7	1.1	0.0
	2016~20	1.2	0.3	2.2	-1.2	-0.1
	2021~24	2.1	1.4	1.6	-0.7	-0.2
건설업	2011~15	1.4	0.6	-0.2	1.2	-0.2
	2016~20	-0.1	0.1	0.6	-0.7	-0.1
	2021~24	0.7	0.4	-0.5	0.8	0.0

주: 서비스업을 유통(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개인(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생산자(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와 사회(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사회복지)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고용조사), 자체 시산

**3.20. 대구지역의 노동시장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은 코로나19 이후의 구인배율 하락, 마찰적 실업 비중 확대 등에서 드러난다.** 결원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sup>22)</sup>이 2010년대에 비해 2020년대 들어 좌하향 이동한 모습<sup>[그림3-27]</sup>을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이 개선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동시장의 수급과 중개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급 상황을 양적으로 보여주는 구인배율 $\frac{\text{신규 구인인원}}{\text{신규 구직건수}}$ 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sup>[그림3-28]</sup>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직종들의 구인배율이 전국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가운데 2022년 이후에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실업 요인을 분해해보면<sup>23)</sup> 2020년 이후 구조적·마찰적 실업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sup>[그림3-29]</sup> 이 중 노동시장 매칭과 밀접한 마찰적 실업의 비중은 2021년 9.0%, 5년 이동평균 기준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4년 14.7%까지 높아졌다.

2020년 이후의 베버리지 곡선에서 전반적인 일자리 중개기능 개선 신호가 관찰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구인배율 하락으로 드러난 노동수급 불균형 심화, 마찰·구조적 실업 비중 상승 등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취업 전환을 지연시켜 고용 회복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

**대구지역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노동수급 불균형은 심화됨**  
**[그림3-27] 대구지역 베버리지 곡선<sup>1)</sup> [그림3-28] 구인배율<sup>1)</sup> [그림3-29] 실업 요인 분해<sup>1)</sup>**



주: 1) 결원율 = 신규 구인자수 / (신규 구인자수 + 경제활동인구)      주: 1) 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건수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2) 통상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는 베버리지 곡선에서 곡선상 이동은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 변화를 나타낸다. 곡선 자체의 이동은 매칭 효율성의 변화 등을 나타내며, 매칭 효율성이 개선(약화)되는 경우 좌하향(우상향) 이동한다.(오삼일 등, 2022)

23)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요인별 실업 분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3.21. 대구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약화 등은 노동투입의 양적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지역은 노동공급 기반 약화, 민간부문 고용창출력 둔화,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약화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의 양적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청년층 순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통해 노동공급측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수급 불균형 확대와 마찰적 실업 비중 상승은 노동시장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중개기능 약화는 단기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재 대구지역 고용 부진의 배경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노동투입 확대를 저해하고 향후 대구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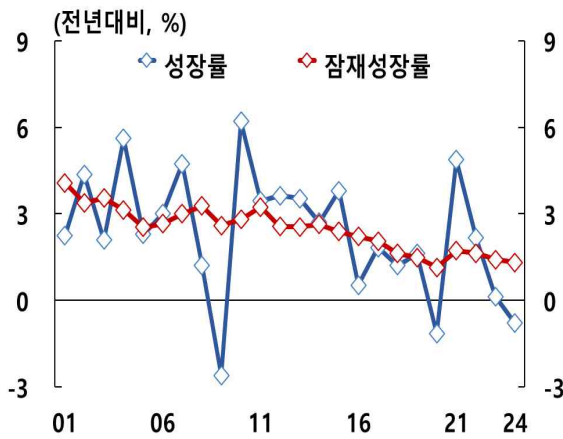
### 3. 구조적 제약과 성장잠재력 약화

3.22. 앞에서 점검한 대구경제의 다양한 구조적 제약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함수 접근법<sup>24)</sup>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과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지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sup>[그림3-30]</sup>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지역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 3%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 중반까지 하락하였다.<sup>[그림3-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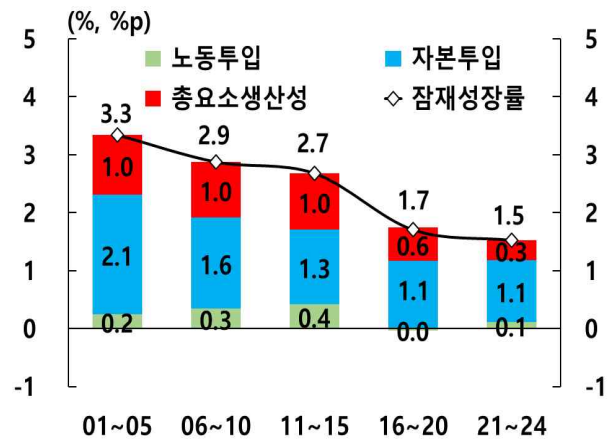
생산요소별로 보면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낮으며, 특히 2016~20년 기간 중에는 0.0%p를 기록하였다.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sub>2.1%p</sub>부터 2021~24년<sub>1.1%p</sub>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다만 여타 생산요소들에 비해 하락폭이 비교적 완만한 것은 건설자산 투자가 설비·기계·운수장비나 지식재산생산물의 투자 둔화를 만회한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성장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도 성장기여도가 2001~05년<sub>1.0%p</sub>부터 2021~24년<sub>0.3%p</sub>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도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3-30] 대구지역 잠재성장률



[그림3-31]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소득), 자체 시산

3.23.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모든 생산요소별로 저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는 대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잠재성장률 추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2024년 중 대구지역의 부가가치 내 건설투자 비중(14.6%)이 전국(13.9%)과 특별·광역시(14.1%) 평균을 상회하는 등 전체 투자에서 건설의 몫이 크다. 대구지역의 건설투자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상승(2001~06년 43.0% → 11~20년 44.0% → 21~24년 62.0%)하고 있다.

## IV. 향후 대응 방향

### 1. 산업

#### ① 생산성 제고

#### 4.1. 먼저 주력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sup>26)</sup>의 증축과 고도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 스마트공장은 1,627개로 전체 공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초 단계<sup>27)</sup>에 머물러 있어 AI 기반 공정관리 등의 고도화가 요구<sup>28)</sup>된다.<sup>[그림4-1]</sup> 최근 들어서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sup>29)</sup>되고 있다. 지역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업종 특성’과 ‘높은 비용 부담’이 디지털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그림4-2]</sup> 이에 따라 정책지원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적용 가능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비용부담이 큰 분야는 단계별 고도화로 진행하는 맞춤형 패키지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활성화로 디지털 활용<sup>30)</sup>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이로 인해 과당 경쟁에 직면한 국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업 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sup>31)</sup>

26) 생산성 증가, 품질 제고,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이 ICT 기술로 통합된 공장을 의미한다.(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27) 스마트공장은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4가지 스마트화 수준(기초-중간1-중간2-고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 단계는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가장 초기 수준을 의미한다.(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28)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944개)의 57%는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대구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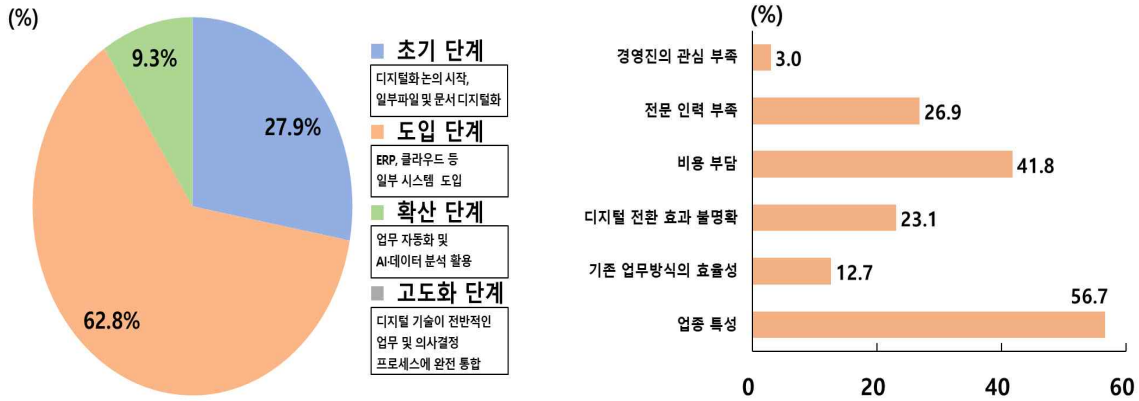
29)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가 급격히 감소(2019년 202개 → 20년 176개 → 21년 90개 → 22년 75개 → 23년 0개 → 24년 0개 → 25년 4개)하고 있다.(대구테크노파크)

30) 2023년 기준 대구지역 서비스업 종사 사업체들의 온라인 거래 사용 비중은 15.5%로 전국(12.3%)과 특별·광역시(11.6%) 평균에 비해 높다.

31) 정희완 외(2025),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9호

대구지역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초기·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음

[그림4-1]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수준 [그림4-2] 디지털 전환 미추진 사유<sup>1)</sup>



주: 1) 복수응답 가능  
 자료: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제조기업디지털 전환(DX)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2025.4월)」

**4.2.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도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대구 광역시가 2009년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현재 지역 소재 산업단지 24개 중 노후산업단지<sup>14개</sup><sup>[표4-1]</sup>의 생산액 및 수출액 비중이 각각 76.9%, 58.7%로 대구경제의 노후산업단지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후산업단지가 인프라 노후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 등의 문제로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재생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건설 등 물리적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 청년층 유인 등을 위한 질적 개선 간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산단 내 혁신 기업 유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32)</sup>

[표4-1] 2024년말 기준 대구지역 주요 산업단지 현황

	산단	노후산단								대구 제3산단 재생사업지구	기타 노후산단 <sup>1)</sup>
		성서 1차	성서 2차	성서 3차	성서 4차	달성 1차	달성 2차	달성 3차	달성 4차		
생산액(조원)	36.6	28.2	3.5	6.5	4.0	2.2	6.4	1.9	1.4	2.2	
수출액(억달러)	89.0	52.3	4.2	6.3	4.2	8.7	24.0	1.2	0.3	3.3	

주: 1) 서대구 산단, 검단·대구염색 산단, 구지·옥포·군위·효령 산단 등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32) 독일 도르트문트 시의 피닉스 지구와 같은 해외 성공 사례들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석탄·철강 산업 중심이었던 루르 공업지는 산업 쇠퇴 이후 산업단지 고도화 과정에서 정보통신·마이크로시스템 등 첨단기술 클러스터가 집적된 서부 지역과 주거·여가 공간이 조성된 동부 지역으로 재편되었다.

## ② 신성장 동력 발굴

**4.3. 현재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5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이나 기회발전특구 등의 유치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sup>[표4-2]</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5대 미래 신산업이 조속히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부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4-2] 대구광역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현황 및 계획**

산업	내용
모빌리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sup>대구·부산·자율차</sup>를 운영</li> <li>·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UAM 시범 모델을 마련(25.9월 국토교통부가 대구광역시를 시범사업자로 선정)</li> <li>*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공항공사, SKT, 한화시스템 등</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신뢰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비수도권 최초의 고신뢰 반도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12억원(국비 144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7.5억원)을 투입할 예정</li> <li>* 첨단산업(의료기기, 항공우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이용되는 반도체의 안정성 검증, 상용화 지원 등을 담당</li> </ul>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수성알파시티를 첨단제조 및 AI 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고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중</li> </ul>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1월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인 메디시티 대구 2.0 프로젝트를 발표(2,300억원 투자)</li> <li>- 25.3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을 확충하고 25.4월에는 대구-구미 간 의료산업단지 연계를 기반으로 복합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li> </ul>
ABB (AI·빅데이터·블록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1월 ABB 산업별 추진 전략과 함께 향후 3년간 120억원(국비 60억원, 시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테크노파크에 AI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li> <li>*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AI 데이터센터 및 ABB 글로벌 캠퍼스 건립, 데이터안심구역 및 가명활용지원센터 구축,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등</li> </ul>

**4.4. 향후 신성장 산업 육성은 대경권 연계를 전제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 육성하는 신산업<sup>33)</sup>과 대구광역시의 신산업은 시너지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 헬스케어<sup>대구·바이오·의료기기</sup>경북와 모빌리티<sup>대구·항공·모빌리티</sup>경북는 상호 연계성이 높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사슬이 존재하므로 각 지자체가 강점과 다양한 환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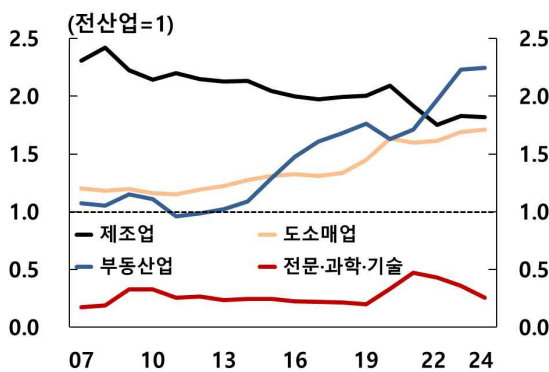
33) 스마트제조, 항공·모빌리티, 첨단그린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차세대에너지와 전자·정보통신이다.

맞춰 역할을 분담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부문에서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상북도가 육성하는 스마트 제조와 대구광역시 육성은 로봇 간에 높은 시너지가 예상되는 만큼 지식·데이터의 환류, 테스트베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면 정책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제조업 고도화의 진전 등으로 상이한 서비스들이 중간재로 생산의 전방시장조사·경영지원 서비스·공정공학·IT 서비스·후방도소매·상품중개·운송 서비스 단계에 투입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up>34)</sup>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지역 제조업<sup>35)</sup>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4.5. 아울러 대구지역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여건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별 대출집중도로 살펴보면 역내 자금이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sup>[그림4-3]</sup> 이는 성장잠재력 제고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업은 대출집중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신성장 산업의 경우 기술개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 연구개발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대구지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전국이나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낮다.<sup>[그림4-4]</sup> 따라서 산학연 협력 강화 등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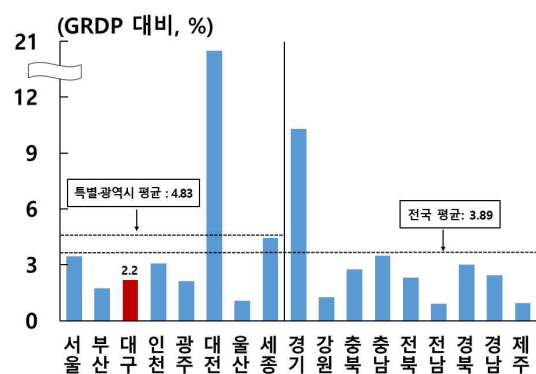
**대구지역의 대출집중도는 부동산업이 높고 전문·과학·기술업은 낮으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전국과 여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낮음**

[그림4-3] 대구지역 산업별 대출집중도<sup>1)2)</sup>



주: 1) (업종별대출 / 전산업대출) / (업종별 GRDP / 전산업 GRDP)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4-4] GR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sup>1)</sup>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 투입 증가율(2015년 대비 2020년)은 전방 및 공정 단계가 각각 21.4%, 28.7%로 후방 단계(15.8%)를 상회하고 있다.(문현주 등, 2024)

35)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경상북도 제조업 생산의 중간수요 비중에서 도소매 서비스가 6.6%, 전문·과학·기술은 5.3%를 차지한다.

## 2. 고용

**4.6. 노동공급에 하방압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인구 정착과 유  
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우선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청년층  
의 지역 이탈 현상을 해소하려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기  
반 창업 활성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신성장 산업의  
앵커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sup>[그림4-5]</sup> 이와 관련  
하여 대구지역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낮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그림4-6]</sup>  
대구지역의 지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전국과 특별·광역시  
를 하회하면서 2024년에 전국 14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구성항목 중 일과 생활  
영역<sup>36)</sup>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점수가 낮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근무여건을 일과 생활의 양립에 더욱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구  
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제고와 소득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데, 향후에는 대구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신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sup>37)</sup>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노인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  
제 대구광역시는 2025년 5월에 「2025 인구활력정책」<sup>38)</sup>을 발표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꾸준  
히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36) 일의 영역은 총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휴가시간,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 근무제 이용률 등 4개 지표  
로, 생활의 영역은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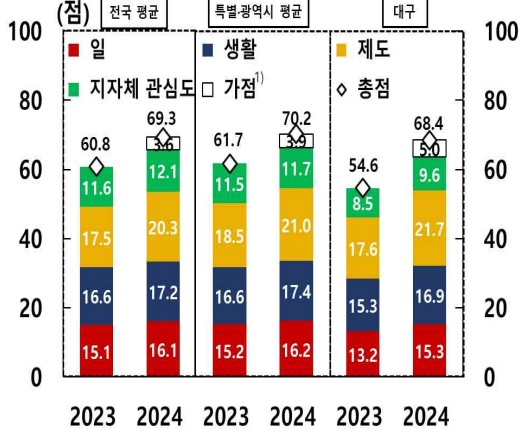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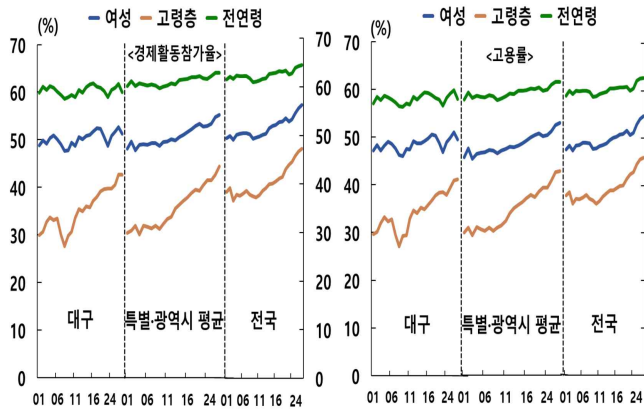
37) 김현웅, 서희정(2026), “대구경북 지역 노인빈곤 현황 및 시사점”

38)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대구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이 부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낮음

[그림4-5] 여성·고령층 고용지표

[그림4-6] 일·생활 균형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정부인증 기사 서비스 활성화 정도임  
자료: 고용노동부

4.7.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의 성장세가 주력 산업의 둔화를 완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한동안 고용 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미래 신산업 부문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경력 전환 교육이나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4.8. 끝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중개 인프라를 확충하고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채용정보 플랫폼 대구일자리 포털을 운영중인데, 향후에도 일자리 중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유지·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기업의 고용 조건과 구직자의 역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하면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고,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역내 인력 수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산업 고도화지수 및 지역 고도화지수

본 보고서에서는 권상준(2021)의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 고도화지수(PRODY)와 지역 고도화지수(EXPY)를 산출하였다. 권상준(2021)은 산업 고도화지수와 지역 고도화지수를 시산하여 2018년까지의 대구·경북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지수 산정을 위하여 전국 사업체 조사의 한국표준사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종사자수를 이용하였다.

산업 고도화지수는 특정 산업이 소수 지역에만 존재하고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력과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도록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PRODY_k = \sum_j \frac{x_{jk}/X_j}{\sum_j (x_{jk}/X_j)} Y_j$$

$x_{jk}$ :  $j$ 지역의  $k$ 산업 종사자수,  $X_j$ :  $j$ 지역의 총 종사자수,  $Y_j$ :  $j$ 지역의 1인당 GRDP

지역 고도화지수는 앞서 산출한 산업 고도화지수를 산업별 종사자수로 가중평균한 후에 지역 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전국을 기준으로 표준화(전국=100)하였다.

$$EXPY_j = \sum_k \frac{x_{jk}}{X_j} PRODY_k$$

## 참고 2 지역혁신지수

본 보고서에서는 유이선(2024)이 산출한 지역혁신지수 방법론과 20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의 지역별 혁신지수를 자체 시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각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동일한 가중을 두어 산출하였다.

$$RI = \frac{\sum_{j=1}^m (q_j y_{ij}^t)}{\sum_{j=1}^m (q_j)} \quad (y_{ij}^t = \frac{x_{ij}^t - \min(x_j^t)}{\max(x_j^t) - \min(x_j^t)})$$

$i$ : 지역,  $j$ : 평가지표,  $x$ : 원데이터,  $y$ : 표준화된 데이터,  $q$ : 가중치(동일한 값)

### 2023년 지역혁신지수 평가지표<sup>1)2)</sup>

대부문	중부문	세부항목	평가지표	특별광역시 내 순위	전국 내 순위
혁신투입	혁신여건	고등교육 이수자 수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대졸 이상 인구(명)	4위	5위
		평생교육 이수자 수	25~64세 인구 1,000명당 평생교육 이수(명)	3위	4위
		국제 논문(공동) 게재 건수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건)	3위	3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명)	1위	1위
		기초 디지털 기술 보유	기업 100개당 정보화 전담 인력 보유 기업 수(개)	3위	4위
	혁신투입	R&D 공공부문 투자	GRDP 100만원당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지출액(원)	5위	9위
		R&D 기업부문 투자	GRDP 100만원당 기업부문 연구개발 투자지출액(원)	5위	10위
		R&D 공공부문 인력	총 종사자수 1,000명당 공공부문 연구개발 인력(명)	7위	15위
		R&D 기업부문 인력	총 종사자수 1,000명당 기업부문 연구개발 인력(명)	6위	11위
		R&D 공공부문 조직	총 사업체수 1,000개당 공공부문 연구개발 조직(개)	6위	13위
혁신산출	혁신행위	벤처기업 수	총 사업체수 1,000개당 벤처기업 수(개)	5위	8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인구 100만명당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	6위	13위
		상표 출원	인구 100만명당 상표 출원(건)	5위	8위
		디자인 출원	인구 100만명당 디자인 출원(건)	3위	4위
	혁신파급	지식기반산업 고용	총 종사자수 1,000명당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명)	6위	10위
		하이테크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 100만 원당 하이테크 제조업 부가가치(원)	6위	11위
		첨단기술 제품 수출	총 수출액 1,000달러당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달러)	7위	13위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	GRDP 100만 원당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kg)*	2위	7위
		자원생산성	자원 소비량당 GRDP(100만원)	6위	7위

주: 1) 유이선(2024)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체 시산

2) '\*' 표시는 지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평가지표여서 지수 산정 시 역수를 이용

### 참고 3 동태적 변이할당(Dynamic Shift-Share)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대구지역 고용증감의 기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Esteban-Marquillas(1972)가 제안한 동태적 변이할당(Dynamic Shift-Share) 분석을 활용하였다. Esteban-Marquillas에 따르면 특정 경제변수의 변화는 전국 요인(National Growth Effect), 산업 요인(Industry Mix Effect), 지역경쟁력 요인(Competitive Effect), 자원배분 요인(Allocation Effect) 등 4가지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와 중분류 기준의 고용 데이터를 지역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begin{aligned}\Delta E_{i,s,t} &= \textcircled{1} E_{i,s,t-1} \times G_t + \textcircled{2} E_{i,s,t-1} \times (G_{i,t} - G_t) + \\ &\quad \textcircled{3} E_{i,s,t-1}^h \times (G_{i,s,t} - G_{i,t}) + \textcircled{4} (E_{i,s,t-1} - E_{i,s,t-1}^h) \times (G_{i,s,t} - G_{i,t}) \\ &= \textcircled{1} NG_{i,s,t} + \textcircled{2} IM_{i,s,t} + \textcircled{3} C_{i,s,t} + \textcircled{4} A_{i,s,t}\end{aligned}$$

$i$ : 산업,  $s$ : 지역,  $t$ : 년도,  $E$ : 고용,  $G$ : 고용증가율

$E_{i,s,t}^h (= \frac{E_{i,t}}{E_t} \times E_{s,t})$ :  $t$ 년도 전국 차원의  $i$ 산업 고용구조와 동조성(homothetic)을 띤다고 가정한  $s$ 지역  $i$ 산업의 고용

- ① 전국 요인: 전국의 고용 증가율이 대구지역의 특정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고용증감
- ② 산업 요인: 특정 산업과 전국의 고용 증가율이 달라서 발생하는 고용증감
- ③ 지역경쟁력 요인: 특정 산업의 대구지역 고용 증가율과 전국 고용 증가율이 달라서 발생하는 고용증감
- ④ 자원배분 요인: 대구지역 특정 산업에 배분된 인력이 전국과 달라 발생하는 고용증감

### 참고 4 요인별 실업 분해

본 보고서에서는 Amstron & Taylor(1971)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을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직종별 구직, 구인 및 취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begin{aligned}\text{전체 실업} &= \textcircled{1} (\sum U - \sum V) + \textcircled{2} (\sum V - \sum \min(U, V)) + \textcircled{3} (\sum \min(U, V) - \sum E) \\ &= \textcircled{1} \text{노동수요 부족} + \textcircled{2} \text{구조적 실업} + \textcircled{3} \text{마찰적 실업}\end{aligned}$$

$U$ : 구직건수,  $V$ : 구인인원,  $E$ : 직종별 취업건수

- ① 노동수요 부족: 경제 내에서 구직자가 구인자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실업
- ② 구조적 실업: 경제구조 변화(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전체 취업가능 일자리가 직종별 취업가능 일자리를 초과하는 상황
- ③ 마찰적 실업: 구직-구인자 간 불완전한 정보, 탐색 과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직종별 취업가능 일자리수가 직종별 취업건수를 초과하는 상황

## 참고 5 잠재성장률 추정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구지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시계열 접근법<sup>HP 필터링</sup>과 구조모형 접근법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사용되며 생산요소별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따르고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여 각 생산요소의 성장기여도가 성장률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였다.

$$\hat{Y} = \hat{A} \hat{L}^\alpha \hat{K}^{1-\alpha}$$

$$\ln \hat{Y} = \ln \hat{A} + \alpha \ln \hat{L} + (1-\alpha) \ln \hat{K}$$

$\hat{Y}$ : 잠재 GRDP,  $\hat{A}$ : 잠재 총요소생산성,  $\hat{L}$ : 잠재 노동투입,  $\hat{K}$ : 잠재 자본투입  
 $\alpha$ : 노동소득분배율(2000년 이후 평균값 0.62)

먼저 잠재 노동투입은 김도완 외(2017)의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 중 추세 경제활동참가율은 HP 필터를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자연실업률은 김도완 외(2017)에서 사용한 상태공간모형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hat{L}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추세 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자연실업률})$$

다음으로 잠재 자본투입은 자산별 생산자본스톡과 고정자본소모 통계를 이용하여 대구지역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산출하였다. 이 때 각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조태형(2023)을 바탕으로 건설자산 2.8%, 설비투자 14.3%와 지식재산생산물 17.4%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잠재 총요소생산성은 솔로우 잔차를 이용하여 산출한 총요소생산성에 HP 필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ln A = \ln Y - \alpha \ln \hat{L} - (1-\alpha) \ln \hat{K}$$

## 참고 6 대구지역 인구구조변화 대응책

### 대구광역시 주요 인구구조 변화 대책

분야		내용
결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 무주택 신혼부부 7년차 이내로서 주소가 대구시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계약자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에 대출이자 자녀 수에 따라 0.5~1.6%를 지원 2~6년
임신 · 출산	임신 사전건강관리	· 20~49세 남녀미혼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주기별 1회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총 3회 지원 여성(남성) 13만원(5만원)
	난임부부 주소가 대구시	·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제외(인공) 수정 20회(5회) 최대 170만원(30만원)을 지원 · 한방: 한의학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 60명 정도를 지원
	출생축하금	· 둘째아 이상 출생 대구시에 출생신고 가정에 대해 출생축하금 둘째아(셋째아) 100만원(200만원)을 지원
	첫만남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 대구시에 출생신고에 대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바우처 첫째(둘째) 200만원(300만원)을 지원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2년간
아동 보육 · 청소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일부 비용에 대한 바우처 태아 유형, 소득 등에 따라 기간·금액 차등 지원 · 산모 건강관리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이용 10일 이내 시 본인부담금 일부, 미이용 시 산후 경비 일부 최대 20만원 지원
	영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세 이하 장애 아동 포함에 대해 보육료 이용 시간별로 기본(09:00~16:00)·장애아·연장(16:00~19:30) 보육료를 지원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24~86개월 미만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누리과정	·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3~5세에 대해 보육료 월 28만원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3~5세에 대해 보육료 차액 정 부지원 보육료 단가 - 민간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부모급여	· 0~1세 아동에 대해 부모 급여 0세(1세) 월 100만원(50만원)을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 보육 서비스 월 60시간 제공 및 보육료 시간당 3천원 지원 6개월~2세반 영아 대상
	아동수당	· 아동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1인당 수당 월 10만원을 지급
청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이자: 직계존속이나 본인 주민등록지가 대구인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원) 재(휴)학생 또는 2020년 이후 졸업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2024.하~25.상 발생이자를 지원 · 신용회복: 학자금대출 채무부실자 주민등록지가 대구인 만 39세 이하 신용유의정보 등록자에게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약정 총액의 5~10%를 지원
	청년 사회진입 활동	· 미취업 청년 대구시 거주 19~39세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1:1 맞춤형 상담 완료 후 청년응원카드 30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원
	청년 맞춤형 고용	· 맞춤형 프로그램 취업캠프, 지역 우수기업 탐방,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타운홀미팅 등을 지원 · 취업 후 2년 이상 미취업자 등 대구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대상
	청년 월세	·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에게 월세 2년간 최대 20만원 지원 단, 청년(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60%(100%) 이하, 총재산가액이 122백만원(470백만원) 이하인 경우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 청년희망주택으로 협약된 행복주택 입주만 19~39세 청년 대상 지원 표 준임대료의 50%와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50%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 무주택 임차인 대구시 거주 전 연령층 중 연소득 5천만원(청년)~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 이 납부한 보증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물건에 대해 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청년 대구시 거주에게 대출이자의 50%를 지원 2년+연장 2년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 무주택 세대주 주소가 대구시이거나 전입 예정(대출 실행 1개월 내)인 만 19~39세가 협약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1억원 한도를 지원 단, 임차보증금이 2.5억원 이하이고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장년 이후	대구시민대학	·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무료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 노인 65세 이상 대상의 프로그램 공익활동·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 등 운영	

자료: 2025 대구광역시 인구활력정책(2025.5월)

## 참고문헌

- 권상준(2021), “대구경북지역 성장역량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김도완 외 2인(2017),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 김민정(2021), “대구경북지역 경제내 부문별 성장불균형 점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김현수 외 2인(2022), “경기지역 성장잠재력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기본부
- 김현웅, 서희정(2026), “대구·경북 지역 노인빈곤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2025), “2025 대구광역시 인구활력정책”
- 방준호, 송수혁(2022), “울산경제 재도약 여건 평가 및 성장 선순환을 위한 과제”, 한국은행 울산본부
- 송상윤, 배기원(2022),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2-22호
- 이형구, 배한이(2022),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이형구(2023), “대구경북지역 고용의 양과 질 평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임규채(2017), “지역소득 변화 추이와 개선 방향”, 대구경북연구원, 제2017-00호
- 정선영 외 2인(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8호
- 정태훈, 최창훈(2015), “대구경북 일자리 미스매치 측정”, 통계연구, 제20-2호, pp. 93-121
- 정희완(2025), “강원지역 고용의 질 평가 및 대응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정희완 외 4인(2025),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제2025-19호
- 조태형(2023),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BOK 경제연구, 제2023-25호
- 최인혁(202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정포럼
- 한대성, 홍준유(2019), “경남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과 시사점”, 한국은행 경남본부
- Esteban-Marquillas, J.M. (1972), “A Reinterpretation of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2(3), pp 249-255
- Hua Chai. (2025), “Labor Market Matching Efficiency and Korea’s Low Post-Pandemic Unemployment”, IMF Working Paper, 2025-082